

“기술로 꿈을 잇고, 도전으로 미래를 연다”

-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부산에서 개최
- 477명 시·도 대표 선수가 41개 직종에서 4일간(9.15.~9.18.) 기량 겨뤄
- 2027년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도 함께 진행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부산광역시 관내 3개 경기장(벡스코, 폴리텍 부산캠퍼스,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된다.

* (개회식) 9.15.(화) 16:00 벡스코 제2전시장, (폐회식) 9.18.(금) 11:00 벡스코 제2전시장

* (표어) 2026 Beautiful Challenge 부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부산광역시(시장 전재수)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이견휘)가 함께 준비한 이번 대회는 477명의 시·도 대표 선수가 41개 직종(정규 19개, 시범 13개, 레저·생활기능 9개)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및 상금*이 지급되고,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27년, 핀란드 헬싱키)도 함께 진행된다. 선발전 결과를 바탕으로 결격사유 등 검증 절차를 거쳐 국가대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상금: (정규) 금상 1,200만원, 은상 800만원, 동상 400만원 (시범) 금상 600만원, 은상 400만원, 동상 200만원, (레저 및 생활기능)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60만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높이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해왔다. 참가인원은 1981년 210명에서 2026년 477명으로, 경기 직종은 17개에서 41개로 확대되는 등 전통 직종부터 IT 직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기능 인력을 배출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게도 직업 역량을 발휘하고 기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시·도 선발전(지역대회·발달대회)을 거쳐 전국대회 무대에 오른 선수들의 도전에는 남다른 무게와 자부심이 실려 있다. 스트리머라는 꿈을 향해 영상편집 실력을 키우는 선수, ‘정확도 100%’를 목표로 데이터입력 우승에 도전하는 선수, 60대에 처음 배운 귀금속 공예로 취업까지 이룬 선수, 다시 잡은 기계 전공을 바탕으로 CNC선반 금메달에 도전하는 선수, 네일미용과 탁구 두 분야에서 동시에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 세 번의 도전 끝에 지역대회 1위를 거머쥔 선수, 12년의 재할 끝에 당당히 금상을 차지한 선수까지 저마다 삶의 이야기와 출발점은 달랐지만,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 마음만은 한결같았다. 포기하지 않고 갈고닦은 나만의 기술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겠다는 것이다. <붙임3 참가선수 사례>

이번 대회 기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진로·취업 박람회, 참여형 직업 체험과 인식 개선 팝업 콘서트, 부산의 명소를 탐방하며 힐링하는 무장애 버스 투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마련하여 장애인 기능인의 가능성과 기술의 가치, 부산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단순한 기량 겨루기를 넘어, 선수들이 갈고닦은 기술의 가치가 꿈을 잇고, 더 나은 일자리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이음의 장’이 되는 무대”라며, “정부는 장애인이 마음껏 꿈꾸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맞춤형 직업훈련과 지역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1.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식 개요
 2.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요
 3.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사례
 4.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현황(477명)
 5.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부대행사(9.16.~17.)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책임자	과 장	박은경 (044-202-7481)
		담당자	사무관	조윤경 (044-202-7483)

□ **개요**

- 일시: 2026.9.15.(화) 16:00 ~ 17:00
- 장소: 부산광역시 벅스코 제2전시장 1층(해운대구 우동)

□ **참석자** ※ 참석자 변동 가능

- (주요참석자) 고용노동부 차관,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선수단) 선수(477명) 및 인솔인원, 심사위원, 지도자 등 800여명

□ **세부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5:55 ~ 16:00	5'	내빈입장 및 착석	
16:00 ~ 16:03	3'	① 국민의례	• 사회자
16:03 ~ 16:12	9'	② 시·도 선수단기 입장	
16:12 ~ 16:15	3'	③ 내빈소개	• 고용노동부 차관, 주요 내빈
16:15 ~ 16:18	3'	④ 대회사	• 대회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16:18 ~ 16:20	2'	⑤ 주제영상 상영	
16:20 ~ 16:23	3'	⑥ 격려사	• 고용노동부 차관
16:23 ~ 16:26	3'	⑦ 환영사	•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16:26 ~ 16:37	11'	⑧ 축사	•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 (영상) 이현승 의원, 최기상 의원, 김형동 의원 • (축전) 부산시의회 의장
16:37 ~ 16:39	2'	⑨ 경기 개시 선언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
16:39 ~ 16:43	4'	⑩ 선수대표 선서(2명)	• 대회장, 선수대표(남·여)
16:43 ~ 16:49	6'	⑪ 개회식 퍼포먼스 '터치버튼 세레모니'	• 고용노동부 차관, 주요 내빈, 선수대표 등
16:49 ~ 16:59	10'	⑫ 축하공연	• 아리아난타&레드몬스터
16:59 ~ 17:00	1'	⑬ 폐회 및 내빈 퇴장	• 사회자

□ 대회 개요

- 기 간 : 2026. 9. 15.(화) ~ 9. 18.(금), 4일간
- 개최지 : 부산광역시 벅스코(해운대구 우동)
(경기장) 벅스코, 폴리텍 부산캠퍼스,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 주최 :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 주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참가선수 규모: 41개 직종, 477명

구분		직종명
직업 기능경기 (32개) 364명	정규 (19개) 207명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전자기기, 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수리, 웹디자인개발,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뇌병변중증), 시각디자인, 전자출판, 점역교정(시각중증), 나전칠기, 한복, 화훼장식, CNC선반, 귀금속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양복, 양장
	시범 (13개) 157명	3D프린팅, 자전거조립, 모바일앱개발, Word Processor, 영상콘텐츠제작, 캐릭터디자인, 건축제도CAD, 안마(시각중증), 바리스타, 제과제빵(발달), 옥내제어, CNC밀링, 메카트로닉스
레저 및 생활기능경기 (9개) 113명		그림(중증), 네일미용(중증), 도자기(중증), 한지공예(중증), e-스포츠(중증), 데이터입력(발달), 영상콘텐츠편집(발달), 사무행정(발달), 바리스타(발달)

□ 시상 및 특전

- (시상) 정규 금상 1,200만원, 은상 800만원, 동상 400만원, 장려상 100만원
시범 금상 600만원, 은상 400만원, 동상 200만원
레저·생활기능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60만원
 - (특전) 입상자(금, 은, 동)는 해당 직종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입상한 날부터 2년간)
 - 직종별 입상자(금, 은, 동)는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27. 5월, 핀란드 헬싱키) 국가대표선수 선발전 참가 자격 부여
- ※ 이번 대회는 2027년 국제대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전과 병행하여 개최

□ 직종별 경기일정

번호	구분	직종명	선수	9.16.(수)		9.17.(목)		경기장
				시작시간	종료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1	정규	웹디자인개발	4	9:00	15:00			부산 벅스코
2	정규	컴퓨터활용능력	12	9:00	14:00			부산 벅스코
3	정규	워드프로세서(뇌병변중증)	10	10:00	11:20			부산 벅스코
4	정규	전자출판	14	9:00	14:00			부산 벅스코
5	정규	한복	10	9:00	17:00			부산 벅스코
6	정규	화훼장식	15	9:00	15:30			부산 벅스코
7	정규	CNC선반	8	9:00	15:00			폴리텍 부산캠퍼스
8	정규	귀금속공예	7	9:00	16:30			폴리텍 부산캠퍼스
9	시범	3D프린팅	12	9:00	14:30			부산 벅스코
10	시범	모바일앱개발	5	9:00	12:30			부산 벅스코
11	시범	영상콘텐츠제작	21	9:00	16:00			부산 벅스코
12	시범	바리스타	16	9:00	12:45			부산 벅스코
13	시범	제과제빵(발달)	11	9:00	15:00			부산 벅스코
14	시범	옥내제어	18	9:00	15:00			부산기계공고
15	레저	네일미용(중증)	14	9:00	12:00			부산 벅스코
16	레저	한지공예(중증)	8	9:00	17:00			부산 벅스코
17	레저	e-스포츠(중증)	15	9:00	14:30			부산 벅스코
18	레저	데이터입력(발달)	12	10:00	11:00			부산 벅스코
19	정규	시각디자인	14			9:00	16:00	부산 벅스코
20	정규	전산응용기계제도(CAD)	6			9:00	15:00	부산 벅스코
21	정규	전자기기	7			9:00	16:00	부산 벅스코
22	정규	컴퓨터프로그래밍	6			9:00	15:00	부산 벅스코
23	정규	컴퓨터수리	17			9:00	12:00	부산 벅스코
24	정규	점역교정(시각중증)	14			9:00	11:20	부산 벅스코
25	정규	나전칠기	11			9:00	16:00	부산 벅스코
26	시범	자전거조립	13			9:00	16:00	부산 벅스코
27	시범	Word Processor	14			9:00	11:00	부산 벅스코
28	시범	캐릭터디자인	17			9:00	16:00	부산 벅스코
29	시범	건축제도CAD	4			9:00	16:00	부산 벅스코
30	시범	안마(시각중증)	15			10:00	15:00	부산 벅스코
31	시범	CNC밀링	6			9:00	16:40	폴리텍 부산캠퍼스
32	시범	메카트로닉스	5			9:00	15:30	폴리텍 부산캠퍼스
33	레저	그림(중증)	17			9:00	13:00	부산 벅스코
34	레저	영상콘텐츠편집(발달)	10			9:00	12:00	부산 벅스코
35	레저	사무행정(발달)	12			9:30	12:30	부산 벅스코
36	레저	바리스타(발달)	12			9:00	11:30	부산 벅스코
37	레저	도자기(중증)	13	9:30	14:30	9:30	12:00	부산 벅스코

※ 가구제작, 목공예, 양복, 양장 직종은 사전경기 개최(8.12.(수)~13.(목))

<1> “스트리머를 향한 도전, 지방대회를 넘어 전국대회 우승으로”

이승희(남, 1992년생) / 영상콘텐츠편집 / 지적장애



지적장애가 있는 이승희 씨의 꿈은 스트리머다.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그는 영상편집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다. 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해 프리미어프로를 익혔고,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그동안 쌓은 실력을 확인하는 첫 무대가 됐다. 금상을 받아 전국대회에 출전하겠다는 목표는 훈련에 더욱 집중하는 계기가 됐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주어진 영상을 정해진 시간 안에 똑같이 재현해야 했기에,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반복 연습을 거듭했다. 지도교사의 도움도 컸다. 선생님의 조언을 계기로 평소 즐겨보던 스트리머의 영상도 ‘시청자’가 아닌 ‘편집자’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편집 기법과 화면 구성, 표현 방식을 하나씩 살펴보며 자신만의 편집 감각을 키워갔다. 대회 당일에는 실력과 경험이 많은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연습한 대로 차분하게 경기에 임했고, 그 결과 지방대회 금상을 차지했다.

막연했던 스트리머의 꿈, 영상편집 기술로 현실이 되었다.

이번 대회를 거치며 이승희 씨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영상편집에 대한 자신감이다. 막연했던 스트리머의 꿈도 이제는 구체적인 목표가 됐다. 그동안 익힌 편집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자신만의 콘텐츠를 직접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지방대회 금상은 끝이 아니라 다음 무대로 가는 출발점이 됐다. 그는 이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향해 다시 연습을 이어가고 있다. “계속해서 영상편집 실력을 키워,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스트리머가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직접 만든 콘텐츠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2> 연습을 통한 정확도 100%, 목표는 오직 우승

최혜성(남, 2004년생) / 데이터입력(발달장애) / 자폐성장애



최혜성 씨는 평소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집중력과 정확한 규칙 준수 능력은 데이터입력 직종에서 강점이 됐다. 대회 참가를 결심한 것도 그래서였다. 컴퓨터 활용 능력을 한 단계 높이고, 그동안 익힌 기술을 실제 취업으로 연결하고 싶다는 목표가 그를 훈련장으로 이끌었다.

훈련은 철저했다. 하루 5시간씩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연습을 반복했다. 대회를 앞두고는 지도교사가 별도로 훈련 시간을 마련해주었고, 일과가 끝난 뒤와 주말에는 집에서 홀로 연습을 이어갔다. 성과는 숫자로 나타났다. 훈련과 함께 준비한 한글 ITQ 자격시험에서 500점 만점으로 A등급을 취득했다.

* 한글 ITQ 자격시험 :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한 문서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

오류는 제로·정확도는 100%, 멈추지 않는 도전은 전국 무대로!

전국대회를 앞둔 지금도 그는 매일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반복해서 입력하고 오류를 확인하며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그의 훈련 방식이다. 목표는 단순한 참가가 아니다.

“오직 우승입니다. 데이터 입력에 오류는 제로, 정확도는 100%를 목표로 삼겠습니다.”

500점 만점의 자격시험에 이어 전국대회까지. 최혜성 씨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정확함’을 취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한 걸음씩 준비하고 있다.

<3> 63세에 배운 귀금속공예, 금메달 거쳐 취업까지

구인선(여, 1962년생) / 귀금속공예 / 지체장애



구인선 씨가 귀금속공예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은 60대에 들어선 뒤였다. 2025년 우연히 참가한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계기가 됐다. 대회를 통해 주얼리 분야에 흥미와 적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그는 일산직업능력개발원 귀금속공예 과정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기능을 익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도면을 읽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면 영상으로 촬영해 몇 번이고 돌려보며 작업 순서와 기법을 하나씩 익혔다. 평일 저녁과 휴일에도 꾸준히 연습한 결과,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금상을 수상하며 전국대회 출전권을 얻었다.

귀금속공예 직종은 6시간 30분 동안 도면을 파악하고, 치수 오차 없이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다. 정확한 도면 이해와 세밀한 작업 능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구인선 씨는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을 경기에서 차분히 풀어내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제출했다.

늦은 도전은 없었다, 기술로 다시 찾은 나의 자리

대회에서 확인한 기능은 취업으로도 이어졌다.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마친 뒤 삼흥산업 면접 기회를 얻었고, 회사는 그의 성실함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채용을 결정했다. 현재는 현장에서 근무하며 전국대회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기능을 배우는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직종 특성상 별도의 연습 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지만, 직업능력개발원 선생님의 도움으로 평일과 휴일에도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1년 전에는 귀금속공예를 배우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기능인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방대회 금상에서 취업으로, 다시 전국대회로. 구인선 씨에게 기능경기대회는 메달을 겨루는 자리를 넘어 새로운 일을 발견하고 이어가는 계기가 됐다. 이제 그가 향하는 다음 무대는 2026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다.

<4> 다시 잡은 기계 전공, 이번 목표는 CNC선반 금메달

박우진(남, 1980년생) / CNC선반직종 / 지체장애



고등학교에서 기계를 전공했던 박우진 씨가 다시 기계 분야를 자신의 진로로 선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11년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당시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장애를 갖게 된 그는 수술과 재활을 거쳤다. 이후 다시 진로를 고민하던 그는 고교 시절 배웠던 기계 분야에서 다시 가능성을 찾았다.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컴퓨터 응용기계분야에 입학하며 오래전 배웠던 전공을 다시 시작했다.

훈련은 주 2회 기계설계·제도 및 모델링 수업, 주 2회 선반과 밀링 가공실습으로 이어졌다. 설계부터 실제 가공까지 단계적으로 기능을 익혀갔다. 장시간 서서 작업해야 하는 가공실습에서는 허리 통증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몸 상태에 맞춰 훈련을 이어가고 일과 후에는 G코드 작성 연습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그 결과 2025년 7월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를 시작으로 9월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12월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와 선반기능사까지, 한 해 동안 관련 자격을 잇달아 취득했다.

멈춤은 있었지만,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다.

2025년 6월에는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산응용기계제도 종목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도면을 그리는 설계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금속을 깎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정밀가공에 눈을 돌렸다. 그렇게 선택한 종목이 CNC선반이었다.

대회를 준비하던 2026년 2월에는 허리 수술로 잠시 훈련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도 있었다. 회복 후 다시 훈련에 합류한 그는 현재 같은 종목을 준비하는 동료들과 기술을 익히며 전국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기계과 졸업생에서 다시 기능훈련생으로, 설계에서 정밀가공으로, 박우진 씨는 자신이 익혀온 기술의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 박우진 씨에게 이번 전국대회는 ‘다시 시작한 기계 전공’의 다음 단계를 확인하는 무대다. 목표는 CNC선반 금상이다.

<5> 네일아트와 탁구, 기능과 운동까지 다잡았다

모운솔(여, 1987년생) / 네일미용 / 청각장애

모운솔 씨가 네일미용을 처음 접한 것은 서산시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평소 지인이 운영하는 네일숍을 이용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직접 배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게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이 낯설고 걱정도 됐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는 네일미용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청각장애가 있는 그에게 수업은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다. 수업 시간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주는 앱을 활용해 선생님의 설명을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복 실습으로 채워나갔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실력은 조금씩 향상됐다. 그 결과 첫 출전한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출전권을 확보했다.

손끝으로 익힌 기술, 한계를 넘어 꿈이 되다.

모운솔 씨에게는 반전 이력이 있다.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탁구선수로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도 출전해왔다는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모두 9월에 열린다. 두 대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는 훈련과 연습 일정을 조율하며 두 종목 모두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네일미용을 배우며 “자신의 재능과 기술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기능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전국대회를 앞둔 그에게 최종 목표는 국내 무대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그는 국제기능올림픽 같은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네일미용 기능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또한 한 아이의 엄마로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도 함께 전했다.

<6> 3수 끝에 지역장애인기능경기대회 1등, 이제 전국대회가 목표

가승훈(남, 2000년생) / 시각디자인 / 청각장애



가승훈 씨는 생후 2살에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그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았고, 그렇게 만난 것이 시각디자인이었다. 하지만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험난했다.

2024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4위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이듬해인 2025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는 아쉽게 탈락해 전국대회 출전 기회를 놓쳤다.

그는 이 시기를 실패가 아닌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디자인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고, 다양한 디자인 트렌드를 공부하며 반복적인 실습으로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보완해 나갔다. 그 결과 2026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1위를 기록하며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다시 출전하게 됐다. 3수 끝에 1위를 거머쥔 것이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됐다.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인 그는, 이번 대회가 실력을 인정받고 시각디자이너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는 청각장애와 디자인 작업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청각장애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디자인은 창의성과 실력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분야입니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전국대회에서 그의 목표는 지방 대표로서, 자부심을 안고 전국대회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는 것이다. 좋은 성적과 함께, 이번 대회를 계기로 시각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취업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 그가 그리는 다음 단계다.

<7> 임신 중 뇌출혈, 12년의 재활 끝에 당당하게 지역대회 금상 수상

진승옥(여, 1979년생) / 워드프로세서 / 뇌병변장애



12년 전, 진승옥 씨는 첫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중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졌다. 하루아침에 삶이 달라졌고, 긴 치료와 재활 끝에 중증 뇌병변장애를 진단받았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다는 마음이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열두 살이 됐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엄마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그 마음 하나로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정보화교육에 참여해 워드프로세서를 배우기 시작했다. 손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 다른 사람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와 조금씩 늘어나는 실력을 확인하며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멈춰버린 일상 위에, 배움으로 내 일(Work)의 꿈을 쓰다.

처음부터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손의 움직임과 오타 하나를 수정하는 데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매일 반복해서 연습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자'는 마음으로 이어간 훈련은 결실을 보았다. 2026년 충남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워드프로세서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이다.

그에게 이번 수상은 단순한 문서작성 능력의 증명이 아니었다. 적절한 교육과 기회만 주어진다면,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였다. 그 과정에는 힘든 순간마다 곁을 지켜준 가족의 응원과 가능성을 믿고 이끌어준 복지관 선생님들의 지도가 있었다.

그는 9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6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가 됐다. "엄마는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나 꿈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단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갑작스러운 장애로 삶이 달라진 다른 이들에게도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8> 국제무대와 전국대회, 두 개의 출전권을 동시에 쥐다

김효탁(남, 1978년생) / 시각디자인 / 지체장애



김효탁 씨는 태어나서 걸어본 기억이 없다. 부모는 그가 세 살 무렵 걷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자신은 일곱 살이 되어서야 스스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학교에 다녀본 적도, 세상 밖으로 나가본 경험도 없이 지내다가 스무 살이 되어서야 처음 휠체어를 타고 사회와 마주했다.

배움의 기회조차 없었던 그는 부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 한글조차 읽지 못했던 그에게 공부는 높은 벽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글을 익히고 영어를 배우며 여러 자격증을 취득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았다고 그는 말한다.

시각디자인을 배우면서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프로그램을 익혔다. 그는 장애보다 창의성과 노력으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고,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꾸준히 도전해 왔다.

세상 밖으로 내디딘 첫걸음, 대한민국과 핀란드 두 개의 무대로 이어지다.

그 결과가 올해 복덩이처럼 굴러 들어왔다. 2025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자출판 직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출전 기회를 얻었고, 2026년에는 경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시각디자인 직종에서 금상을 받으며 전국대회에도 동시에 출전하게 된 것이다. 한 해에 국제대회와 전국대회를 함께 준비하게 된 것은 그에게 그동안의 노력과 도전이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단순한 순위 경쟁이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무대로 여긴다. "디자인 분야는 장애의 유무가 아니라 창의성, 전문성, 끊임없는 노력이 실력을 결정합니다." 그는 인생에서 여러 번 새로운 출발을 해왔다고 말한다. 세상 밖으로 첫발을 내디뎠던 순간, 글을 배우고 기술을 익혔던 순간마다 그는 스스로 다시 시작하는 경험을 했다. 이번 전국대회와 국제대회 역시 그에게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이다. 대한민국과 경상북도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그는 지금 두 무대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붙임4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현황(477명)

번호	구분	직종명	계	서울	전남광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계			477	49	46	34	45	19	26	25	16	58	17	22	29	20	28	28	15
1	정규	전산응용기계제도(CAD)	6	1	0	1	1	0	0	0	0	1	0	1	1	0	0	0	0
2	정규	전자기기	7	1	0	0	2	0	0	1	0	1	0	0	0	0	1	1	0
3	정규	CNC선반	8	2	0	0	1	1	0	0	0	4	0	0	0	0	0	0	0
4	정규	컴퓨터프로그래밍	6	1	0	0	0	0	0	1	1	1	0	0	1	0	1	0	0
5	정규	컴퓨터수리	17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6	정규	웹디자인개발	4	0	0	1	1	0	1	0	0	0	0	0	1	0	0	0	0
7	정규	컴퓨터활용능력	12	1	1	1	0	0	1	1	1	1	1	1	1	1	0	1	0
8	정규	워드프로세서(노병반중증)	10	1	0	1	1	0	1	0	1	1	0	0	1	0	1	1	1
9	정규	시각디자인	14	1	1	1	1	1	1	1	0	1	1	1	1	0	1	1	1
10	정규	전자출판	14	1	2	1	1	1	1	0	1	1	1	1	1	0	0	1	1
11	정규	점역교정(시각중증)	14	1	2	1	1	1	0	1	0	1	1	1	0	1	1	1	1
12	정규	귀금속공예	7	1	0	1	0	1	0	1	0	1	0	0	0	1	1	0	0
13	정규	나전칠기	11	0	1	1	1	1	1	1	1	1	0	0	1	1	0	1	0
14	정규	한복	10	1	1	1	1	0	1	1	0	0	0	0	1	1	0	1	1
15	정규	화훼장식	1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
16	정규	가구제작	15	1	2	1	1	1	1	1	1	1	1	0	1	1	0	1	1
17	정규	목공예	11	0	2	0	1	1	1	1	0	1	1	0	1	1	0	0	1
18	정규	양복	12	1	2	1	0	1	1	1	0	1	0	1	1	0	0	1	1
19	정규	양장	14	0	2	1	1	1	1	1	0	1	1	1	1	1	1	1	0
20	시범	CNC밀링	6	1	0	0	1	0	0	0	0	3	1	0	0	0	0	0	0
21	시범	메카트로닉스	5	2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시범	육내제어	18	0	0	3	2	0	0	1	0	5	0	1	1	0	0	5	0
23	시범	3D프린팅	12	2	2	1	3	0	0	0	0	0	0	0	0	0	2	1	1
24	시범	자전거조립	13	0	2	0	1	0	1	1	1	1	1	1	1	1	1	1	0
25	시범	모바일앱개발	5	3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26	시범	Word Processor	14	1	1	1	1	0	1	1	1	1	1	1	1	1	1	1	0
27	시범	영상콘텐츠제작	21	5	1	3	6	0	1	0	0	3	0	0	0	0	2	0	0
28	시범	캐릭터디자인	17	4	0	0	1	2	0	0	0	10	0	0	0	0	0	0	0
29	시범	건축제도 CAD	4	0	0	2	0	0	0	0	0	2	0	0	0	0	0	0	0
30	시범	안마(시각중증)	15	1	2	1	1	1	1	1	1	1	0	1	0	1	1	1	1
31	시범	바리스타	16	1	2	1	1	1	1	0	1	1	1	1	1	1	1	1	1
32	시범	제과제빵(발달)	11	1	2	0	1	0	1	1	0	0	0	1	1	1	1	1	0
33	레저	그림(중증)	17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4	레저	네일미용(중증)	14	0	2	1	1	1	1	1	0	1	1	1	1	1	1	1	0
35	레저	도자기(중증)	13	3	0	0	0	0	1	1	0	1	0	3	1	0	3	0	0
36	레저	한지공예(중증)	8	0	0	0	2	0	1	0	0	4	0	0	0	0	0	1	0
37	레저	e-스포츠(중증)	15	1	2	1	1	1	1	1	1	1	1	0	1	1	0	1	1
38	레저	데이터입력(발달)	12	1	3	1	2	0	1	0	1	2	0	0	1	0	0	0	0
39	레저	영상콘텐츠편집(발달)	10	1	1	0	1	0	0	0	0	0	1	0	2	2	2	0	0
40	레저	사무행정(발달)	12	2	2	0	1	0	1	0	1	1	0	1	0	0	2	0	1
41	레저	바리스타(발달)	12	3	3	0	0	0	0	2	0	0	0	1	2	0	1	0	0

붙임5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부대행사(9.16.~17.)

□ 기 간: 2026. 9. 16.(수) ~ 9. 17.(목)

□ 장 소: 벅스코 제2전시장 1층, 해운대센텀호텔 18층 에메랄드홀 등

□ 부대행사

테마	부스명(장소)		세부 내용		장소
진로설계 및 취업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 (16일)	기업채용관	박람회 직접 참여기업 현장 면접 박람회 간접 참여기업 서류 접수 및 별도 면접 진행		벅스코 제2전시장
		사전취업 ·진학특강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대학 입학 정보 설명회, 장애인 특별전형 안내 등 진로와 진학,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취업컨설팅관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준비, 자기소개서 작성 등 취업준비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진로설계관	취업·직업 훈련상담	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공공일자리 정보 등 상담	
			지역사회 진로상담	지역 내 장애인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진로 방향 상담	
			진학 상담	특수학교 전공과, 대학 진학, 장애학생 특별전형 상담	
		직업체험관	AI 활용 미술작가 체험	생성형 AI 이미지를 창작하고 나만의 손거울을 제작해 보는 체험	
			목공 디자이너 체험	목공 디자인과 조립과정을 체험하며 티코스터를 제작하는 체험	
			정리 수납 체험	정리수납 전문가의 역할을 배우고 공간정리 방법을 실습하는 체험	
			라디오 DJ 체험	DJ와 리포터 역할을 경험하며 방송 진행 과정을 체험	
홍보	보조공학기기 전시 (16일~17일)	공단 보조공학기기 및 지원제도 홍보			
	인식개선 (16일~17일)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팝업 콘서트 및 관련 제도 홍보			
정책	장애인 직업재활컨퍼런스 (16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적 필요 공유		해운대 센텀호텔	
	제64회 EDI 정책토론회 (16일)	부산지역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			
문화 탐방	무장애 '부산시티투어' (16일~17일)	감성+참여+휴식+로컬을 모두 느끼는 부산 명소 탐방 * 영도 - 해양박물관 - 송도 - 동백섬 투어		벅스코, 라마다양코르	